



정기검진·예방접종·적절한 치료로 건강하게...



고양이 생로병사의 비밀 '빅데이터'

범백혈구 감소증 치사율 80% 육박
심장질환·천식 등은 급사 유발 질병
만성 신부전은 전체 사망원인 1, 2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또는 사건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수치화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을 '통계' 라고 한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통계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 라 부른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질병 발생도 데이터화돼 통계로 정리되고 있다. 과거로부터 꾸준히 모여온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영상 이미지를 포함하는 빅데이터화돼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여러 기관서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양이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질병들에 대해 알아본다.

- 1. 고양이에게 사망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병들
▶범백혈구 감소증·범백혈구 감소증은 바이러스

소화기 감염증의 하나이다. 주로 면역이 완성되지 않고 위생적이 않은 환경에 노출된 어린 동물들에게 감염되며, 치사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하면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

- ▶고양이 박막염=바이러스의 전신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주로 3세 이전의 어린 고양이들에게 감염되며,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치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아직 국내에서 공식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특정 항바이러스 물질을 투약해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 ▶고양이 백혈병/면역결핍증=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잠복기가 긴 경우가 있어 진단이 어려운 편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치료 방법은 없다. 몸의 생리 기능과 면역 기능을 서서히 감소시켜 여러 감염성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2.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유발하는 질병들

- ▶심장 질환=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는 평소 잘 지내다가도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다. 심장 질환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성 요인 ▷다른 질병에 의한 2차적 요인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고양이들은 중년령에 해당하는 6세부터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건강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권장된다.

- ▶폐색성 비뇨기 질환=소변이 나오는 경로가 막혀서 신장 손상 등 장기 기능 저하로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다. 고양이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방광염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비뇨기 결석 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평소 지내는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해주는 것과 위험군에 있는 고양이들은 처방사료나 보조제 등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고양이 천식=고양이의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양이의 호흡기 질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 천식 환자와 마찬가지로 평소 호흡기 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고양이에게 사망을 유발하는 만성 질병들

- ▶만성 신부전=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돼 사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양이의 전체 사망원인 중 1, 2위를 다툴 정도로 빈도가 높고 위험한 질병이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확인받는 것이 권장된다.

- ▶종양=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신체 여러 부위에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미리 발견해 관리할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날 수 있으며,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 윤 기
제주동물병원장

영화觀

나의 뒤에서

무언가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생각한다. 지금의 나 혼자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들이 모여 지금의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그러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고. 과거는 흑역사와 추억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던지 애뉘하다. 후회뿐인 순간들을 돌이킬 수 없어서, 아깝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더욱 그렇다. 종종 과거를 잊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말들이 들리지만 과거를 현재에 데려온다는 것이 꼭 퇴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설렘을 품게 한다면 오늘의 나를 간직할 과거 또한 몽글하게 마음을 움직인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는 한 여자가 하루 동안 과거의 자신과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배우였던 상옥이 오랜만에 귀국해 동생의 아파트에서, 과거의 집에서, 과거의 기억이 소환되는 거울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무언가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이 영화는 사소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순간들을 선보인다. 언제부터가 점점 더 간결하고 함축적인 작품들을 내놓고 있는 홍상수 감독은 길지 않은 러닝타임 안에 삶과 죽음의 이야기들을 마치 장시처럼 들려주고 있다.

감독은 전작인 '강변호텔'에서 노년의 남자가 떠났던 여정을 흑백의 동화처럼 그려낸 바 있는데 눈으로 뒤덮인 강변의 풍경을 위를 걷고 바라보고 멈추어 섰던 배우 기주봉의 뒷모습이 겨울 저녁의 해그림자처럼 진한 잔상을 남긴 작품이다. '강변호텔'은 죽음이라는 불명확한 실연의 어딘가를 서성이는 듯해서 위태롭기도 서글프기도 한 영화였는데 죽음의 발자국을 덮어 버리는 눈들이 마치 현재를 덮는 마감재처럼 느껴져서 보는 내내 마음이 먹먹하고 어쩐지 서럽기도 했다. 신작인 '당신 얼굴 앞에서'에도 죽음은 예정된 약속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죽음의 환영은 슬프다거나 쓸쓸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둠 속을 뚫고 내리쬐는 한 줄기 빛처럼 조용하고 신비로운 움직임으로 다가온다. 극 중 상옥의 말을 빌리자면 그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

너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순간들에 어떤 확언도 내리지 못한다. 지독하게 쓸쓸한 고백이지만 그 말을 내뱉은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회한을 밀어낸 열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죽음의 앞에서 나의 과거를 마주한 이가 갖게 된 평온은 어떤 무게이길래 상념들을 누름돌처럼 가볍히 누르고 있는 걸까.

극 중 상옥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던 동생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고 훌쩍 커버린 조각가 건넨 선물을 기쁘게 열어본다.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찾아가 그곳에 가게를 하고 있는 여인과 인사를 나누고 그곳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기도 한다.

자신을 캐스팅하고 싶어 하는 감독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고백을 받기도 한다. 그 하루 동안 상옥은 커피를 마시고 떡볶이를 맛보고 차 한 잔을 대접받거나 향수병처럼 생긴 술병의 독주로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상옥의 하루는 꿈같기도 하고 여행 같기도 한 우연과 회상으로 가득 채워진다. 사귀어왔던 그를 리모컨 듯 반짝이는 상옥의 여정에는 과거의 그녀들이 함께한다. 우리였고 거기였으며 나였고 지금인 상옥의 조각들이 그녀와 어깨를 맞대고 발을 맞춘다. 나인 그녀들은 내 등을 밀어 주기도 하고 손짓으로 길을 안내하기도 한다. 마침내 모두가 함께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이 되면 따로 또 함께했던 간절한 기도가 지금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오직 한 치 앞에 펼쳐진 천국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야 몇 갈래인지 종잡을 수 없어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뒤에 두고 다시 가만히 기다리는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받아들여 다시 내가 된다.

<신명현 독립영화스튜디오오우브먼트 대표>

수축상

CONGRATULATIONS

제42회 김만덕상 (봉사부문)

김 추 자
(동초등학교 10회)

제42회 김만덕상(봉사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임 세 훈 의 회원일동

수축훈

CONGRATULATIONS

체육훈장 맹호장

김 민 재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일동

임축용

CONGRATULATIONS

판사

김 희 속

판사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부 김승하 · 언니 김효숙

수축상

CONGRATULATION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고 영 남
(명성사 대표)

제33회 인쇄문화의 날에 우리나라 인쇄문화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인장협회 제주지부

지부장 김 창 윤 의 회원일동